

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논의 결과

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

- 금융권 노사정은 아직 진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여, 勞·使·政이 하나가 되어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.
- 특히, 경영애로가 극심한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여전하여 만기연장·상환유예 신청기간도 연장된 만큼,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기민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.
- 또한,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,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장 방역을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언택트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 - * 영업점·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방역철저 및 근무환경 개선,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한 업무연속성 유지 등
- 금융권 노사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권이 과감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.
- 유연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, 빅테크·핀테크와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.
- 또한, 다가오는 기후변화 위기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하여 금융권은 그린뉴딜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, 금융당국도 감독체계 및 공시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② 금융권 노사정의 지속적인 소통·협력 강화

- 금융권 노사정은 지난 5월 상호간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한 이후, 주기적인 실무회의·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으며,
- 앞으로도, 소통·협력을 강화하여 금융권에 당면한 여러 과제들의 원만한 해결과 사회적 신뢰 확충을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발전 달성에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③ 최근 금융권 현안 관련

- 금융권 노사정은 디지털 혁신을 매개로 금융산업이 직면한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아, 금융권의 지속적인 혁신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,
- 빅테크·핀테크發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서비스 규율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.
- 또한,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점포축소가 사회적 약자의 금융접근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- 한편,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기간은 종료되었지만 금융권 전반의 이해 증진과 지속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법률이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금융권 노사정은 고령화와 양극화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,
- 이에, 노사는 노사 공동 공익재단 활용 등을 활용하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